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이 되기전까지의 생애

[교황이 되기 전의 생애]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이탈리아 출신 철도노동자 마리오 호세 베르고글리오(Mario Jose Bergoglio)와 레히나 마리아 시보리(Regina Maria Sivori) 부부사이에서 1936년 12월 17일에 태어났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서 화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소속의 '원죄 없으신 잉태 신 학교'에 입학했다. 3년 후인 1958년에는 예수회에 입회해 1969년 12월 13일, 33세 생일을 4일 남기고 수사신부가 되었다.

21살 때인 1957년 늑막염으로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내고 폐렴 합병증을 평생 앓게 됐다.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으며 한때 바운서로 일한 적도 있다 한다.

사제가 되기로 한 계기가 조금 독특하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말리아라는 여자아이에게 러브레터를 건네며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받아주지 않으면 신부가 되겠다"고 청혼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말리아는 60여 년이 흐른 2013년 그가 교황이 되자 말 그대로 기절초풍했다고 한다. 그녀가 공개한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여자친구가 없었는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다만 청소년기 탱고를 같이 춘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단순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꼬마 시절에 실패했던 사랑 고백 하나 때문에 성직자의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신학에 좀 더 열중할 수 있던 것 같다.

2023년 디즈니+의 다큐멘터리 The Pope: Answers에서 신학교에 다니기 전 애인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도 고해사제, 예수회 아르헨티나 관구장, 산 미구엘 대학 신학교수,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좌주교, 그리고 대주교를 역임한 뒤 200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추기경 시절]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교구장 재임시 아르헨티나 동성결혼 법안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인권단체의 비판이 많았다. 반대운동 때 동성결혼과 인공피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에게 "중세적 마인드를 가진데다가 이단심문관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때문에 서로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아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추기경 시절인 2012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독재를 노리는 선동꾼"이라고 비판하였다. 페르난데스는 페론당(정의당) 출신 정치인으로[7] 실제로 후안 페론&이사벨 페론 부부에 이어 아르헨티나 2번째의 부부 대통령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의 동성결혼 합법화 및 입양 조건 동등화는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되었다.

교황이 수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당시 교황이 비난했던 것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는 어휘가 강했을지는 몰라도 타당한 비판이다. 정치학이나 행정법을 공부하면 약간이나마 언급되는 부분인데, 원래 행정명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우회하여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단골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위임민주주의의 일종으로 "포고령주의"로 불리는 행정명령의 남용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방해하고 법을 통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교황이 되자,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에게 포클랜드 섬에 대해 영국의 군사적 증강을 막고 자신과 대화 창구를 놓아달라는 개입 요청을 하였다. 교황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지만, 영국은 교황은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주권 국가 사이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가만 있어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 탓에 가만 있다가 불뚱이 튄 격인데, 이래저래 악연인 듯.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톨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2015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베아트리스 발레라(Beatriz Valera)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사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려고 들어오자 강제로 사무실에서 내쫓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모자는 나중에 교회와 금전적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이 여성은 "베르고글리오 추기경도 물론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면서 침묵하고 있으므로, 모두가 공모자이다."라고 하였다.

10대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훌리오 세자르 그라시(Julio Cesar Grassi) 신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는 연을 끊은 것처럼 행동하여 언론의 공격을 피했으나, 직접 사실 조사관을 고용하여 그라시의 무죄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도하였으나 그라시는 결국 유죄로 밝혀져 감옥에 갔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건강상의 문제로 퇴위한 후에 치러진 콘클라베 이틀째인 2013년 3월 1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 출처: <https://namu.wiki> >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2025년
4월 2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사도행전 5,12-16

화답송 시편 118(117),2-4,22-24,25-27ㄱ(◎ 1)



후렴.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1,9-11ㄴ,12-13,17-19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 20,19-31

성가 입당 134 봉헌 220, 342 성체 166, 165 파견 129

-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오석건(안토니오) - 가족
 - 이금자(비비안) - 김 스텔라
 - 이정환 - 김수잔
 - 이광선(베드로) - 이이레네
 - 이석종(스테파노) - 이용문(안드레아)
 - 정영철(프란치스코) - 이헬레나
 - 김병학(바오로) - 손영수(유스티노)
 - 우승희(크리스티나) - 우가브리엘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오용덕(헨리코) - Raphael & Catherine
 - 김지화(미카엘) 김경아(미카엘라) - 성미카엘라

- * 미사지향 (생미사)**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 최현지(안토니아)
 - 성준엽(사도요한) - 오부제님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윤발리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 가족 이막동(아네스)
 - 이종인 김진희(아우렐리아) 이예원(테오도라) - 성미카엘라
 - 오경숙(세실리아) - 성가대
 - 이지민(카타리나) - 이서형(요안나)
 - 박정화(요셉) 박덕화(요안나) - 오부제님 이서형(요안나)
 - 김영은(안젤라) - 대모 허아나스타시아
 - 배영준(노아) - 에디스구역
 - 조정혜(릿따) - 이지민 (카타리나), 박락준(베드로)

-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4/30 주일헌금.....\$1,764(175명)
 - 부활절 감사헌금.....\$5,462
 - 김영필 김수완 곽신규 방숙자 박재영 박화성 배영준 백영숙
 - 손경진 손종철 이은아 이재서 이종실 임민수 임영자 은식 오경숙
 - 전옥주 최승웅 최골롬바 최혜자 황분숙 황태진 허중 익명
 - 교무금.....\$700
 - 서정근(3~4) 백상현(3~4) 박상배(3~4)

*** 새로오신분, 방문해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성당(채플)은 성체가 모셔져 있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단속 확인 바랍니다.
 - 성당안의 가전제품이나 큰가구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미리 상의해주세요.

-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글라라)
 - 하준석(마태오) 광 울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 2025 Bishop’s Annual Appeal**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5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본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지난주까지 약정된 금액은 \$29,396.60 (목표금액의 75.38%)입니다.

- * 4월 빵과 포도주 봉헌**
4/27: 최혜자, 황분숙

- * 친교 봉사 일정**
5/18 노스브런스익 6/15 사우스브런스익 7/20 썸머셋

- * 미사후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한 연도가 있겠습니다.**

- * 주일학교 기금 마련 탁구대회**
일시: 4월 27일 (주일) 미사 후
장소: 친교실
참가비: \$5
간단한 스낵과 음료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야고보회 친교모임**
시간/장소: 5월 3일(토) 오후 1시/친교실

- * 반석회 모임**
일시/장소: 5월 3일(토) 낮 12시 / 친교실
박화성 헬렌, 이희숙 데레사,한종매 안나 자매님 점심 제공 감사합니다.

- * 노스브런스익 구역모임**
일시/장소: 5월 4일(주일) / 미사 후 친교실

- *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일시/장소: 5월4일(주일) / 미사 후 친교실

- * 성모의 날 행사**
일시/장소: 5/11(일) 미사중
화관 증정/ 꽃 봉헌 (단체/개인) / 성모님께 편지 봉헌

- * 꾸리아 월례회의**
시간/장소: 5월18일(주일) 오후1시 / 친교대회의실

- * 오현주 요한 부제님께서 부활절에 복사단에게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성모님께 편지 또는 묵상글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경전읽기**
성경을 읽으며 성경과 관련된 고전에 담긴 깊은 뜻을 새겨보는 강의입니다. (매주 (화) 낮 12-1시 친교실 / 강의: 유병기 베네딕도)

- * 사순필사노트는 성당입구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제 1독서 사도행전 5,12-16**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여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1,9-11 12-13,17-19**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르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일곱 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뵈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요한20,19-31**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주교회의, 교황 추모 위한 기도문 발표 >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4월 23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문을 배포했다. 기도문은 현재까지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도문이 없는 상황에서 미사 전후 등 신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표됐다. 주교회의는 교황청에서 공식 기도문을 발표하면 곧바로 우리말로 번역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2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임시 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공식 기도문을 교황청으로부터 받는 대로 번역해 교구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음은 기도문 전문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 +

영원한 목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린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바치는
하느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양 떼를 돌보게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신비를 충실히 거행하였으니,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를
사랑으로 돌보시어
온 교회를 가르치는 슬기로운 교사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훌륭히 수행하게 하셨으니,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양 떼를 돌보는 대사제로 뽑으신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이제 하느님 나라의 사제단에 들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였으니,
이제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하늘의 성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출처: 카톨릭신문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 >